

고린도전서12:1-11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은사’라는 말은 ‘카리즈마’ 혹은 ‘카리즈마타’ 라고 해서 ‘선물’을 의미한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곧 ‘은혜의 선물’이다. 바울 서신에서는 이 은사라는 말이 16회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은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도 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많다는 것이다. ‘은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도구’ 이다.

1. 사모하라(1)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라는 말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4:2 “ -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 잘 구해야 합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누가복음11:13 “너희가 알지니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2. 훈련으로 얻어진다.(2)

예를 들어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가 태생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권에서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는 헤브라이즘의 최대 교육기관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그가 바로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간 곳은 아라비아로 이끌려 갑니다. 거기서 말씀에 침취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갑는데 거의 14년동안 예수를 만나고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바울을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부터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서 14년 동안 아라비아와 자기 고향에 ‘다소’에서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바나바가 이끌어 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3. 주로 시인하게 된다.(3)

성령의 은사 선물은 무엇이나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된것은 우리드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우리가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입으로는 강요에 의해서 부모를 안심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해줄수는 있으나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